

WE START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 2026 Vol. 16



‘울림’은 소리가 멈춘 뒤에 비로소 시작되는 진동이다. 악기의 현이 떨림을 멈추어도 공연장의 공기가 한동안 떨리듯, 타인에게 건넨 진심은 행위가 끝난 뒤에도 우리 삶에 긴 여운으로 남는다. 이 정서적 파동은 메마른 일상을 적시는 비가 되고, 지친 마음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수익률이 되어 돌아온다. 기분이 곧 가치가 되는 시대, 우리는 일방적인 도움의 기록을 넘어 서로의 삶이 공명하며 만들어낸 다정한 울림들을 기록하고자 한다.

발행일 2026년 3월
발행인 김수길
발행처 사단법인 위스타트
기획, 편집 사단법인 위스타트
전화 02-318-5004
홈페이지 www.westart.or.kr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48-6
디자인 (주)얼스
컨텐츠 위스타트 소식지 16호

위스타트는 중앙그룹 JoongAng Group과 함께 합니다.



CONTENTS

- 04 커버스토리
윤남노 셰프
- 08 올림
겨울림과 때맞음
침묵이 전하는 올림
타인이라는 세계가 내게 울려 퍼질 때
다정한 재능
혼자보다 다함께
- 18 여행
짱뚱어 할머니의 눈물
- 20 필드
'함께'라는 말을 배우는 시간
즐거움이 쑥쑥, 마음이 활짝!
따뜻한 울타리
- 24 후원자 스토리
- 26 사업현황 및 재정보고
- 28 위스타트 News

COVER STORY

치열한 불꽃 너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다정한 울림

‘요리하는 돌아이’ 너머, 셰프 윤남노가 전하는 진심



방송에서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요리에 몰두하는 ‘요리하는 돌아이’로 불리지만, 우리가 만난 그는 수줍음 많고 정이 넘치는 ‘따뜻한 형’이자 ‘다정한 삼촌’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위아자 나눔위크를 통해 위스타트 아이들에게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온 윤남노 셰프. 그가 요리와 삶, 그리고 나눔을 통해 전하고 싶은 ‘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01 방송에서 보여주신 ‘요리하는 돌아이’라는 닉네임이 워낙 강렬하잖아요. 셰프님 스스로 생각하시는 ‘윤남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별명은 방송 컨셉일 뿐, 실제 모습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웃음) 평소엔 진지할 땐 진지하고, 왈가닥할 때는 또 한없이 밝고요. 무엇보다 걸모습과 달리 정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방송 속 캐릭터와는 상반된, 조금은 더 따뜻하고 진중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남노 셰프



02 이번 호의 주제가 <울림>입니다. 셰프님은 늘 손님들에게 미각적인 감동을 주시는 분인데요. 반대로 최근에 드셨던 음식 중에 "와, 이건 진짜 내 마음을 울리는 맛이다" 싶었던, 셰프님에게 깊은 위로와 울림을 줬던 메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선재 스님께서 싸주신 '우영 김밥'이 기억에 남아요. 들어간 재료라곤 간장과 조청, 우영, 두부뿐이었거든요. 저는 평소 소스를 즐겨 쓰고 화려한 맛을 내는 요리사인데, 그 투박하고 심플한 김밥이 주는 울림이 상당하더라고요. 재료 본연의 맛과 정성이 어우러지면, 화려한 기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냉면'도 저에게 큰 울림이죠. 어릴 땐 냉면새도 싫고 놀림도 받아서 입에도 안 댔는데, 이제는 저의 '소울 푸드'가 되었으니까요. 싫어했던 기억조차 사랑하게 만드는 힘, 그게 음식의 울림 아닐까요?

03 주방이라는 곳이 매 순간이 전쟁터처럼 치열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가셨을 때, 피로한 몸과 마음을 풀리게 해주는 셰프님만의 '소확행'이나 힐링 방법이 있으신가요?

맛있는 음식에 술 한 잔 곁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방 용품 구경'이에요. 저는 옷이나 신발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릇이나 칼, 주방 물품을 보면 마치 게임기를 산 아이처럼 설레거든요.(웃음) 꼭 사지 않고 구경만 해도 즐겁고, 가끔은 동료들에게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선물한 조리 도구를 동료들이 아껴가며 잘 쓰는 모습을 보면,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강아지 영상'을 봅니다.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서 유기견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집을 오래 비우는 직업이라 실행하진 못했어요. 대신 틈날 때마다 영상을 보고, 쉬는 날엔 유기견 보호소 봉사하거나 지인의 강아지를 돌보며 힐링하곤 합니다. 존재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친구들이니까요.

COVER STORY

- 04 **맞아요. 동물을 아끼는 마음처럼 애장품 기증도 해주시고, 참 따뜻한 분 같아요. 사실 요리라는 게 나의 시간과 정성을 타인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일이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때처럼, 누군가에게 마음을 베풀고 나누었을 때 "아, 참 좋다" 하고 느꼈던 특별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나눔에 대해 생각해보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방송 활동을 시작하고 생전 처음 받은 출연료를 기부했던 일입니다. 그날 고생한 동료들에게 밥과 책을 선물하고 수익이 조금 남았는데, 우연히 안락사 직전의 유기견 구조 영상을 보게 됐어요. 망설임 없이 구조 단체에 연락해 그날 번 돈을 전부 보냈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썼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고요. 나중에 그 강아지가 구조되어 해외 입양까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손님이 제 요리를 먹고 행복해할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짜릿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제가 계속 나눔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 05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셰프님에게도 치열하고 외로운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포기하고 싶던 순간, 누군가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나 작은 친절 덕분에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힘을 얻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능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시고 나온 진단비로 저를 요리학원에 보내주셨거든요. 그 돈의 무게를 아니까 남들처럼 대충 다닐 수가 없었어요. '소금'과 '설탕' 두 가지 재료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던 것도 그 절박함 때문이었죠. 학창 시절부터 저를 위해 헌신해 준 형,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해봐라"라며 곁을 지켜준 동료들... 100명이 등을 돌려도 제 곁에 남아준 한두 사람의 믿음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윤남노 셰프



06 위스타트 아이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게 공부하거나 꿈을 쫓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도 한때는 유학을 못 가서 인생이 망한 줄 알았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런던, 도쿄, 시드니로 떠날 때 저는 돈이 없어 못 갔거든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박탈감 때문에 괴로웠죠. 그때 어른들이 하는 “묵묵히 버티라”라는 말이 제일 싫었어요. 당장 힘든 아이들에게 무조건 버티라는 건 해결책이 아니니까요. 대신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걸 저버리지는 마.” 상황이 안 돼서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남들보다 느릴 수도 있어요. 저도 호주에 가고 싶어서 단돈 30만 원 들고 무작정 떠났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끈만 놓지 않는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마음속에 아른거리는 꿈이 있다면, 늦더라도 꼭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7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훗날 우리 위스타트 아이들이 “셰프님 밥 먹고 싶어요!” 하고 식당에 놀러 온다면, 셰프님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요리사니까, 제 고집보다는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볼래요. “너 뭐 먹고 싶니?” 라고요. 평소에 먹고 싶었지만 비싸서, 혹은 기회가 없어서 못 먹었던 게 있다면 무엇이든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떡볶이든, 회덮밥이든 아이가 가장 원하는 바로 그 음식을 대접해서 “아, 내가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구나.” 하는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겨울림과 때맞음

김범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팽팽하게 당겨진 기타 줄을 손가락으로 튕기면 줄이 위아래로 빠르게 진동하며 켜진다. 기타 줄의 떨림은 곧 기타 몸체의 울림통을 울려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전원에 연결하지 않은 울림통 없는 전자기타는 줄을 튕겨도 작은 소리만 들린다. 떨림이 하나의 문제라면 울림은 둘의 문제다. 울리려면 먼저 떨어야 하지만 모든 떨림이 울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홀로 떨 수는 있어도 혼자서 울림을 만들 수는 없다. 떨림이 울림이 되려면 떨림이 닿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하나가 떠다고 해서 다른 것이 늘 울리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물체의 떨림에는 자연스러운 진동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가진 진동수가 물체의 자연 진동수와 같을 때 더 큰 울림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자.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살짝 두드리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린다. 바로 이 소리의 음높

이가 와인잔의 자연 진동수에 대응한다. 만약 와인잔 외부의 소리가 가진 진동수가 와인잔의 자연 진동수와 같다면 와인잔의 떨림이 점점 커지고 결국 와인잔이 깨질 수도 있다. 사람이 목소리만으로 와인잔을 깨는 것이 가능한 이유다. 이런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공명 혹은 겨울림이라고 부른다. 겨울림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진동수다. 내부와 외부의 진동수가 같을 때 겨울림이 발생한다. 내가 애써 만든 떨림이 상대에게 울림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 상대의 자연스러운 진동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떨림은 연결로 커지기도 한다.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넓은 나무판 위에 여러 메트로놈을 올려놓고 작동시키면, 뒤죽박죽 움직이던 메트로놈이 박자를 맞춰 함께 진동한다. 여럿이 시간을 맞춘다는 의미를 담아서 동기화 현상, 혹은 때맞음 현상이라고 부른다. 전체가 이처럼 때를 맞춰 함께 움직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도 알려져 있다. 메트로놈 하나하나마다 다른 자연 진동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메트로놈 여럿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서로 달라도 더 많이 소통하고 더 강하게 연결해 차이를 극복한다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러 메트로놈이 큰 규모의 때맞음을 보여주는 것을 늘어나는 되먹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점점 때를 맞춰 함께 움직이는 메트로놈이 많아지면 메트로놈이 올라서 있는 넓은 나무판이 더 큰 진폭으로 움직이고, 나무판의 큰 움직임이 영향을 미쳐서 다음에는 더 많은 메트로놈이 때맞음에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메트로놈이 때맞음에 이르면 다음에는 나무판이 더 크게 움직여 다음에는 더욱 늘어난 메트로놈이 때맞음에 이르게 된다.

떨림은 하나의 문제지만 울림은 둘의 문제다. 떠다고 항상 울리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의 떨림에 자신의 떨림을 잘 조율해야 큰 규모의 꺾음림이 발생한다. 어떤 떨림은 연결로 커진다. 연결된 여럿이 때를 맞춰 함께 떨면 다음에는 더 많은 여럿이 함께 참여한다. 떨림과 울림, 꺾음림과 때맞음의 물리학으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떠올려본다. 내가 애써도 당신에게 닿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당신의 자연스러운 내면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연결로 커지는 때맞음을 생각하며 작은 여럿이 함께 연결해 만들어진 세상의 큰 변화를 가만히 떠올려본다.



침묵이 전하는 울림

조성익 홍익대학교 교수 / TRU 건축사무소 대표 건축가



삶이 고요해지는 공간, 공동묘지를 산책하는 이유

나의 단골 산책로는 공동묘지다.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으스스한 공동 묘지를 비오는 밤이면 걷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삶을 고요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곳,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걷는다. 이곳이 내 단골 산책로인 이유는 고요한 분위기 때문이다. 골목마다 술 냄새가 배어 있는 홍대 앞 골목을 걷다가 절두산으로 향하는 경사로를 올라가다 보면 양화진 묘원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 도착하면 마치 회전하는 무대 장치처럼, 홍대 앞의 번잡함이 일순간 고요한 정적으로 바뀐다.

머리가 복잡한 저녁 무렵에 이곳을 가보라. 언덕을 따라 난 오솔길을 걸으면 인생의 마지막 집들이 점점이 놓여있다. 돈 잘 벌면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기

위해 살아가던 우리가 결국 다다른 곳은 단순한 돌기둥 하나 세워놓은 한 평 남짓한 집이다. 주변에는 무심히 계절을 알려주는 꽃나무가 심어져있다. 공동묘지라기보다는 감춰진 비밀 정원 같은 느낌이 든다.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도 좋지만 공동묘지 산책의 또 다른 묘미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비석에 쓰인 비문을 읽어보는 것이다.

줄리아 듀랙(Julia Agnes Durack, 1925-1974): 줄리아 듀랙은 양화진에 안장된 유일한 천주교 수녀로 디트로이트의 머시 간호대학에서 공부한 후 1955년 메리놀 수녀회에 들어갔다. 그는 1966년 한국에 온 뒤 부산 메리놀 병원 산부인과 개설에 참여했으며, 이후 간호 선교사로 헌신했다.

안내판에는 줄리아 듀랙이 겪은 말년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던 그는 47살에 암에 걸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듀랙은 어찌 된 일인지 마지막 삶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평범한 사무직에 종사하며 마지막까지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이웃을 위해 헌신한 후 1974년 숨을 거둔다. 그녀의 장례식은 절두산 순교자 기념성당에서 거행되었고, 유해는 유언에 따라 세브란스 병원에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다. 그리고 양화진 묘원에 안장된 유일한 수녀로 남았다.

고대 로마에서는 개선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 한 명을 옆에 앉히고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악담을 하게 했다고 한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너도 죽는다!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라!" 요즘으로 치면, 큰 거래 건을 따고 기뻐하는 사장님 옆에서 한 직원이 "그래 봤자 언젠가는 망한다!"라고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참으로 철저한 '자만심 브레이크'다.



하지만 인간은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금세 과속하기 마련이다. 죽을병에 걸려서야 비로소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죽음을 일깨워줄 공간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이 묘원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은 줄리아 듀랙의 묘비문처럼 몇 문장으로 요약될 것이다. '조성익은 ○○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빈칸에 들어갈 한두 단어를 위해 매일 아침 출근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다시 화해하며 산다. 그 빈칸에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다거나 '크게 재력을 쌓은 사람'이었다고 채워져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줄리아 듀랙을 기억하라. 자신의 묘비가 '타인을 위해 삶을 산 사람'이라 기록된다면, 미래에 묘비 앞을 산책할 이들에게 기분 좋은 울림을 줄테니.

언덕을 내려와 솔 냄새가 더욱 진해진 홍대의 거리를 거쳐 집으로 돌아왔다. 죽음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 하며, 내 삶의 각도는 조금 바뀌어 있었다.

* 이 글은 조성익의 책<건축가의 공간일기> (북스톤) 에 실린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타인이라는 세계가 내게 올려 퍼질 때

이다혜 씨네 21 기자 / <영화의 언어>, <오래된 세계의 농담> 작가



사진 출처: 영화 '6번칸'

영화 속 여행의 순간들

영화는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은 비밀상의 경험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경험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영화 주인공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점심에 뭐 먹지?”라는 평범한 질문도 여행지에서라면 새로워진다.

여행은 설렘과 함께 시작한다. <비포 선라이즈>의 이십대 중반인 두 주인공 제시와 셀린느는 기차에서 만난다. 제시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여행을 와 일정의 끄트머리에 다다랐고, 파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셀린느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기차 안에서 다투는 사람들 때문에 우연히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야기가 점점 길어진다. 영화의 초반은 기차 안에서 길게 이어진다. 학교를 다니는지,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는 각자의 꿈과 소망,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여행의 신비. 우리는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뜻밖에도 친구나 가족에게도 하지 않던, 혹은 못하던 이야기를 선뜻 털어놓곤 한다.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안도감이 마음 속 벽을 허무는 것이다. 나는 <비포 선라이즈>와 그 후속작인 <비포 선셋>의 각본 번역을 했는데, 초반 기차 장면에서 셀린느는 이런 말을 한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내가 아이였을 때에도 부모님은 내가 TV 뉴스 캐스터나 치과의사 같은 장래 직업을 꿈꾸기를 원했거든.” 부모님의 기대를 실감하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기에, 셀린느는 기차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그런 압박감에 대해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제시의 대답은 이렇다. “부모님은 자식이 멋진 직업을 갖게 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대화는, 기차 안의 이방인들이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친근함을 발전시킬 수 있게 서로의 방향으로 등을 떠밀어준다. 대단히 극적인 장면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도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비포 선라이즈>가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던 이유는 이것이었다. 어쩌면 나도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소소한 듯 중요한 고민을 이야기하며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낭만적인 상상.

같은 유럽 기차라고 해도, <6번 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여러모로 다르다. 라우라는 핀란드에서 온 유학생으로 모스크바에서 고고학을 공부한다. 연인과 함께 1만년 전에 새겨졌다는 암각화를 보러 여행갈 계획을 세우지만, 연인이 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혼자 기차에 오른다. 2등석 객실 6번 칸에 탄 라우라와 같은 칸에 탄 료하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열차가 출발하기 무섭게 술을 마시고 아무리 좋게 말해도 무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이어간다. <비포 선라이즈>가 첫눈에 반할만한 상대와 편안한 대화로 인연을 시작한다면, <6번 칸>은 그 악몽 버전처럼 보인다. 솔직히 말해, 빨리 이 칸을 벗어나 도망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엄습한다. 하지만 달리는 기차에서도 망칠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6번 칸>은 의외성을 뿜는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라우라의 상황에 처하면 SNS에 글을 올릴 것이다. “같이 탄 사람 너무 이상함.” 모든 면에서 양극단인 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순간을 이 영화는 만들어낸다.



사진 출처: 영화 '6번칸'

<비포 선라이즈>에서 여행은 하염없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주인공들 앞에 보여준다. 기꺼이 기대고 싶은 우연과 우연을 엮어, 이 만남에 미래가 있기를 기대하게 한다. <6번 칸>에서 인생은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불편함을 한껏 강조해놓고, 편견은 편견일 뿐이며 기적을 만드는 데는 혼자로는 부족하다고 속삭인다. 영화는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은 영화 속에서 한없이 충만해진다.



사진 출처: 영화 '비포 선라이즈'

다정한 재능

고수리 KBS 인간극장 작가



“누가 누군지 친구들이 알아봐?”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쌍둥이 형제는 심드렁하니 대답도 똑같이 했다.

서안과 지안. 우리 집 아이들은 일란성 쌍둥이라서 똑같이 생겼다. 얼굴뿐인가. 키도, 체형도, 뒤통수도 똑같아서 어떤 때는 나조차도 아이들을 헛갈린다. 엄마도 이러한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떨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같은 반으로 배정되었을 땐 걱정부터 했다. 쌍둥이 형제가 붙어 다니면 어김없이 비교와 평가가 따라다닐 테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누가 형이니 동생이니’로부터 시작된 비교는 ‘누가 더 크니, 더 잘생겼니, 더 착하니’와 같은 평가들로 번졌다. 쌍둥이 형제는 서안과 지안, 이름도 성격도 취향도 다른 고유한 아이들인데, 단지 눈에 똑같이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쉽게 무례를 범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작은 학교에는 학급수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마저도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반에는 15명의 친구만 남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교생이 쌍둥이 형제를 알았다. 누군가 장난스럽게 ‘쌍둥이들이다!’라며 부르고 지나갈 때면, 뒤따라올 비교와 평가로 아이들이 상처받진 않을지 마음 졸였다.

종업식을 앞둔 겨울이었다. 아이들 학급에서 재능발표회가 열렸다. 한 학년을 마무리하며 가족들을 초대해 저마다의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 서안과 지안도 뭔가를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았는데 엄마에게는 끄끙 숨겼다. 발표회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직접 친구의 무대를 소개했다.

“내 친구 소울이는 옆들기를 잘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종종 걸어나온 소울이는 올려뭉은 머리를 다시금 질끈 동여맸다. 오가며 인사를 나눌 땐 조용하고 수줍은 친구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두 팔을 뻗은 소울이는 거침없이 빙글, 또 빙글. 옆돌기로 마룻바닥을 오갔다. 씩씩하고도 우아한 재능이었다. 와아아, 박수가 쏟아졌다.

친구들을 소개하는 멘트도 아이들이 직접 썼다고 했다. 내 친구 주영이는 피구할 때 공을 잘 잡습니다. 내 친구 연우는 쉬는 시간마다 너무 웃습니다. 내 친구 진영이는 매직큐브를 반듯하게 접습니다. 소소하지만 특별한 재능을 소개하는 근사한 말들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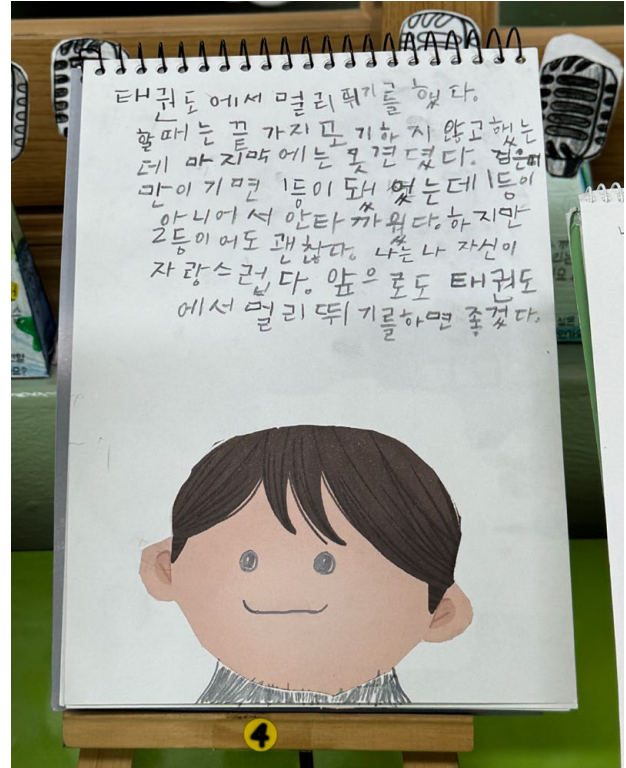
“내 친구 서안이는 2단 뛰기 생뽕이를 잘 뛼니다. 내 친구 지안이는 친구들을 잘 봐줍니다.”

서안과 지안은 줄넘기와 태권도로 친구들과 합동무대를 선보였다. 서안이는 한가운데 서서 나비처럼 날아 2단 줄넘기를 생뽕 넘었다. 가장자리에 선 지안이는 제 품새보다도 친구들의 대열을 정리하고 동작을 봐주느라 바빴다. 차분하게 종이접기를 보여주는 친구, 듀엣으로 함께 노래하는 친구들, 친구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발레를 추는 친구도 있었다. 무대가 이어질수록 가슴께가 간지러웠다. 실은 완벽한 무대는 하나도 없었다. 순서가 틀리고 동작이 어긋나고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의 재능은 실수가 잦았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속닥거리며 다시 시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몽클했다.

서로의 재능을 가만히 지켜보며 응원해 본 시간. 아무도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단정 짓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오히려 어른의 시선으로만 기준을 두었던 나의 조바심과 걱정이 부끄러웠다. 문득 학급 게시판에 붙어있는 종이카눈에 들어왔다.

‘나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합니다.’

생각했다. 누군가의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건, 다정한 마음이나. 다정한 친구들이 곁에 있기에 아이들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줄 알았다. 사소한 장점 하나라도 발견해내는 투명한 눈과, 괜찮다고 다시 해보라며 격려하는 박수 소리가 우리 모두를 씩씩하게 했다. 줄넘기에 발이 걸리고, 피아노 음계를 틀리고, 긴장한 목소리가 작아지더라도, 그 누구도 울지 않았다. 잘했어. 참 잘했어. 12월의 작은 교실에는 몇 번이고 박수 소리가 노래처럼 쏟아졌다.



“누가 누군지 친구들이 알아봐?”

나의 물음을 곰곰이 돌아보았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서안과 지안은 심드렁하게 대답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본대?”

“계속 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대.”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품은 다정한 재능을.

* 생뽕이 형제 서안과 지안을 제외한 친구들의 이름은 모두가명입니다.

혼자보다 다함께

김도현 대중음악 평론가 / 한국 대중음악상(KMA)심사위원



음악 평론가로 활동한 지 올해로 13년 차가 되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다. 동시에 주변으로부터 가끔은 음악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한다. 축구 선수에게 공 차는 게 지루하지 않느냐거나 요리사에게 물 끓이는 게 힘들지 않느냐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들이 때가 있다. 과연 내가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맞나.

지면을 빌어 고백하건대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오래도록 나에게 음악은 공명하는 게 아니라 분석과 감탄의 대상이었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성된 소리의 매혹에 넋이 나가 깊이 몰입하거나, 디지털 파일과 스트리밍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감을 뽐내는 천재들의 재능에 탄식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 자신이 고독하다는 착각에 빠져 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긴

예술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생긴 습관이다. 취미를 일로 이어 나가고 나서는 더욱 혼자가 편해졌다. 예술은 아름다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방식은 기계적이고 건조하다. 그것이 '음악 애호가'나 '음악 팬'이 아닌 '음악 평론가'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신기하다. 한없이 혼자여야 할 것 같고 근엄한 말투를 가지게 되는 음악 평론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직업이 될 줄 몰랐다. 워낙 낯을 가리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던 나는 이제 음악 플랫폼 '제너레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 어색하지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외치기도 한다.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나를 도와주는 모습에 벌써 어떻게 그 정성을 갚아나가야 할지 걱정이 막막하다. 오직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리의 전율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이끌어간다. 내가 음악을 통해 느끼는 울림은 음악 그 자체의 감동이라기보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모인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느끼는 쾌감에 가깝다.

오늘날 세계에서 '공명'하는 음악과 음악의 풍경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진공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매우 과격하고 거친 음악에 맞춰 서로의 몸을 부딪치는 풍경이 낭만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록 앨범 부문을 수상한 밴드 턴스타일이 대표적인 밴드다. 턴스타일은 강하고 빠른 펑크 록(Punk Rock)을 연주하며 관객과 함께 아우성을 치는 언더그라운드 장르 하드코어를 어떤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부딪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신으로 끌어올렸다. 턴스타일의 대유행만이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오늘날 록과 힙합 페스티벌 현장에서 유독 젊은 친구들이 구호에 맞춰 서로를 인파의 구렁이에 몰아넣는 장면이 낯설지 않다.

한국 시각 2월 9일 열린 미국 미식축구리그 결승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등장한 푸에르토리코 출신 팝스타 배드 버니의 무대가 뜨거운 화제를 낳는

현상 역시 강렬한 울림이다. 천문학적인 광고비가 오가는 지상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무대에서 오직 스페인어로만 노래하며 모든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를 축복한 그는 '중오보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무대를 마무리했다. 이토록 고립되어 있고, 서로서로 미워하는 시대에 배드 버니는 함께 하는 이웃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기록해 두라고 노래한다. 그들의 음악 제목은 내일 다시 눈을 뜨면 잊어버릴 생각과 감각을 물질적인 형태로라도 저장하고 간직해 두라고 당부한다. 앨범 제목은 다음과 같다. "사진을 좀 더 찍어둘 걸(DeBí TIRAR MÀS FOTOS)"

과거였다면 이런 광경조차 냉소적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물리적인 소리보다 마음의 진동을,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울림에 대해 생각하며 음악을 듣고 있다. 그리고 이 평범한 기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 오늘도 부지런히 음악을 글로 쓰고 말하고 있다.

짱뽕어 할머니의 눈물

손민호 중앙일보 레저팀장



독배기에서 끓고 있는 짱뽕어탕. 아침에 한 그릇 비우면 하루가 든든하다.

바다는 발이다. 여행자에게 바다는 낭만의 다른 이름이겠지만, 바다만 바라보고 사는 갯마을에서 바다는 고단한 삶의 현장이다. 고맙게도 바다는 온갖 끼니거리로 가득하여, 약척갈기만 하면 살아낼 방안을 구할 수 있다. 먼바다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다. 마을 어귀 갯벌에만 나가 봐도 된다. 물 빠진 갯벌은 수상쩍게 생긴 녀석들 천지지만, 막상 잡아오면 밥이 되고 돈이 된다. 갯벌에서 벌어들여오는 끼니거리를 남도 갯마을에선 '갯것'이라 부른다. 해물(海物)이 아니라 갯것이다. 갯것이라고 불러야 갯마을의 정서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

남도 갯벌은 온갖 종류의 갯것으로 풍성하다. 게가 기어 다니고, 낙지가 꿈틀거리고, 조개가 숨을 쉰다. 이들 갯것 중에 짱뽕어도 있다. 경음으로 이뤄진 이름도 수상하고,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행동도 수상하고, 해괴한 생김새는 더 수상한 갯것이다. 짱뽕어는 눈이 머리 위로 툭 튀어나와 있다. 몸집은 통통한 미꾸라지 같은데, 지느러미를 활짝 펴면 꽤 크고 화려하다. 손암 정약전 선생은 『자산어보』에서 짱뽕어를 '철목어(凸目魚)'라고 불렀다. '눈이 튀어나온 물고기'라는 뜻이다.

이 수상한 갯것도 사람이 먹는다. 생김새만 보면 먹을 게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먹을 만하다. 짱뽕어는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심지어 날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굵게 간 뒤 추어탕처럼 독배기에 끓여 먹는다. 얼큰하고 목직한 게 아침에 한 그릇 먹으면 온종일 든든하다.

남도에는 짱뽕어탕 끓이는 집이 많다. 전라남도의 여러 고장, 그러니까 순천, 보성, 장흥, 해남, 신안, 무안 같은 남도의 갯마을을 가보면 짱뽕어탕 잘하는 집이 꼭 있다. 전남 해남과 장흥 사이 강진에도 짱뽕어탕으로 유명한 집이 있다. 강진시장 건너편의 '강진만갯벌탕'이다.

강진만갯벌탕. 이 집을 드나든 지가 20년을 헤아린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순임 할머니가 짱뽕어탕을 끓인다. 이 집이 다른 짱뽕어탕 집과 다른 점이 있다. 이 집에서 끓이는 짱뽕어는 모두 할머니가 잡아온 것이다. 올해 일흔 여섯 살이 된 이순임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짱뽕어를 잡았다고 했다. 강진이 멀어 자주 들르지는 못했지만, 긴 세월 드나들었던 인연이 있어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사연은 할머니가 끓여 주는 짬뽕어탕처럼 무겁고 진했다.

“열세 살부터 짬뽕어를 잡았네. 동네에서 조금 나가면 강진만 갯벌이었거든. 학교도 안 가고 짬뽕어를 잡으러 갔어. 하고 많은 갯것 중에 왜 짬뽕어를 잡았냐고? 짬뽕어가 제일 비쌌거든. 지금도 비싸. 비쌀 때는 한 마리에 3000원씩 해. 짬뽕어가 몸에 좋아. 장어는 기어 다니지? 짬뽕어는 날아댕겨.”

일흔여섯 살 할머니가 열세 살부터 짬뽕어를 잡았으니 올해로 64년째다. 갯마을 소녀가 잡아온 짬뽕어는 소녀의 밥이 되었고 고무신이 되었고 연필이 되었다. 그렇게 잡아온 짬뽕어로 할머니는 평생을 살았다. 둘째를 낳자마자 월남에 간 남편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짬뽕어를 잡아야 했다. 어릴 적 소녀의 밥과 고무신과 연필이었던 짬뽕어는 아이들을 먹이는 밥과 가르치는 학비가 되었다.



전남 강진의 짬뽕어 할머니 이순임씨. 할머니가 어려웠던 시절을 말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평생 짬뽕어를 잡아온 이순임 할머니의 손. 뿔때가 끼어 손톱 밑이 새까맣다. 왼손 검지는 칼질하다 잘려 다시 붙었다. 봉합 자국이 보인다.

할머니가 짬뽕어를 잡는 방법은 독특하다. 처음에는 맨손으로 짬뽕어를 잡았지만, 나중에는 요령을 알아냈다. 낚시 바늘 네 개를 하나로 묶은 다음 낚시를 던져 짬뽕어를 낚아챘다. 2019년 할머니를 따라 갯벌에 나간 적이 있었다. 할머니는 뿔때 타고 쓱쓱 갯벌로 나아갔다. 풀 속으로 숨었던 짬뽕어가 기어 나오길 기다렸다가 휘리릭 낚시를 던졌다. 백발백중. 할머니가 팔을 휘저을 때마다 짬뽕어가 올라왔다. 할머니는 “한창 때는 하루에 1000마리도 잡았다”고 자랑했다.

작년 11월 이른 아침. 여느 때처럼 짬뽕어탕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옆에 와 앉았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할머니에게 손을 보여 달라고 했다. 검게 그을린 손 곳곳이 상처투성이였다. 바짝 까은 손톱 밑으로 뿔때가 새까맣다. 손가락이 짧고 몽푹한데, 왼손 검지가 이상했다. 할머니가 “시래기 썰다가 찔렸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자세히 보니 봉합한 자국이 드러났다. 할머니 손을 오래 어루만졌다.



이순임 할머니가 손수 개발한 짬뽕어 낚시. 바늘 네 개를 엮어 하나로 만들었다.



이순임 할머니가 잡은 짬뽕어를 보여주고 있다. 짬뽕어가 힘이 좋아 이렇게 꼭 잡아야 한다.

'함께'라는 말을 배우는 시간

변아람 언양서부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마음의 결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기에, 이곳에서의 교육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시작된 위스타트 인성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일상에 잔잔하지만 분명한 파동을 일으켰다.

프로그램 초반, 유독 마음이 쓰이는 아이가 있었다.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새로운 활동 앞에서는 늘 뒷걸음질 치던 아이였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해하던 그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데 익숙해 보였다. 하지만 회기가 거듭될수록 아이에게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 역할을 나누고 목표를 공유하는 팀 활동 속에서 아이는 서서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머뭇거리던 눈빛은 점차 친구들을 향했고, “내가 할게”라며

스스로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어느새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말이 아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때, 그 성장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뭉클함을 주었다.

또 다른 변화는 ‘소통’에서 일어났다.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해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을 어려워하던 아이가 있었다. 본의 아니게 갈등의 중심에 서곤 했던 그 아이는 팀별 활동을 통해 ‘규칙’과 ‘존중’의 의미를 몸소 체험했다. 내 뜻대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사의 안내와 친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다가가 “네 생각은 어때?”라고 묻는 아이의 변화에 친구들도 마음을 열었고, 교실의 공기는 한결 등글고 부드러워졌다.



이번 인성교육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론 주입식이 아닌, 아이들의 오감을 깨우는 ‘체험’이었기 때문이다. 요리, 매거진 제작, 사진 촬영, 가면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은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아이들은 활동에 몰입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혔다.

변화는 교실 문밖으로도 이어졌다. 친구를 부르는 목소리는 상냥해졌고,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현장에서 목격한 인성교육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교정’이 아니었다. 아이들 스스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이었다. 함께 웃고 부딪히며 다시 손을 내미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이 긍정의 변화가, 앞으로 아이들의 삶 전체로 퍼져나가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즐거움이 쑥쑥, 마음이 활짝!

한가운 지원지역아동센터 4학년



우리 센터 수업 중에서 제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인성수업'입니다. 언니, 오빠, 친구들과 다 같이 어울려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인성도 바르게 자라는 것 같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쑥쑥 커지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언니, 오빠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매주 이 시간만 기다려집니다.

인성수업 때는 매거진 만들기, 사진 찍기, 요리, 가면 만들기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요리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침이 튀면 안 돼서 말을 아껴야 해서 조금 심심할 때도 있지만, 내 손으로 직접 요리를 완성하고 다 같이 나눠 먹을 때의 뿌듯함은 정말 최고입니다.

'매거진 수업' 중 친구들과 함께한 '잡지땅' 활동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누가 더 많이 땅을 모으느냐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덕분에 조원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힘을 합치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의미 있는 수업을 만들어 주신 위스타트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인성수업을 계속하며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 수업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울타리

김가연 지원지역아동센터 졸업생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19살 고3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험 생활이 시작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러 오랜만에 센터를 찾았습니다. 간만에 들른 곳이지만 어색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지원지역아동센터는 제게 언제나 마음 편히 기대 쉴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졸업 때까지, 제 어린 시절의 전부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센터의 따뜻한 보호와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지금의 제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스타트 인성수업'은 제게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참여했던 수업들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 큰 추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집단 활동을 통해 '나'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타인과 어우러지는 법을 배우며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 친구들과 모이면 아직도 그때의 인성수업 이야기를 나눌 만큼, 그 기억은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스타트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언젠가 저도 어른이 되면, 위스타트 선생님들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남은 1년, 인성수업에서 배운 가치들을 잊지 않고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열일곱 해 전, 8살 어린이의 결심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2008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여덟 살 종윤이는 배달된 신문을 펼치다가 멈췄습니다. 자신과 같은 나이의 아이 이야기가 1면에 실려 있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를 꼭 도와주고 싶다.'

아버지 구두를 닦으면 용돈 5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을 닦으면 2천 원. 불량식품 사 먹기 딱 좋은 돈이었지만, 종윤이는 그 돈을 모아 매달 보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신 뒤 혼자 집 전화기를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 그 이야기는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보신 많은 분들이 또 기부를 결심하게 되셨다는 걸 부모님께 전해 듣고 어린 마음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열일곱 해가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스물여섯의 어른이 된 이종윤 씨는 지금도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버겁고 숨이 차오를 때도, 어딘가에서 오늘을 더 힘겹게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그를 붙잡아주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지나가는 작은 금액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달을 견디게 하는 숨이 되고, 다시 꿈을 꾸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선의가 아닌 반복되는 사랑이라는 점이 참 감사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후원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한 발짝 앞서 걷다가 뒤따르는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드리는 일, 무거운 짐을 끄는 어른신 곁에서 잠시 손을 보태드리는 일. 후원은 그런 마음의 연장선에 있는 선택이라고요.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매달 꾸준히 실천하는 일.

힘든 이웃을 마주할 때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종윤 씨는 그것을 '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파동이 손이 되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때, 따뜻한 온기가 다시 자신 안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신문지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여덟 살 아이의 순수함을, 그는 오래도록 잊지 않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 함께 후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

"저에게 울림은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울림을 활용할수록 소리는 멀리 닿듯이, 작은 마음도 울림이 있으면 먼 곳까지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박*영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후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함께 만드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강지훈

"메아리처럼, 받은 대로 돌려주는 아이들이 떠올라요. 아이들의 지킴이는 함께하는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현주

"나눔은 저를 행복하게 하네요. 마음은 더 커집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큰 게 아니어도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익명 후원자

"작은 마음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서로가 행복해지는 마법 같아요."

-권*애

WE START

사업현황

2025 국내 총 지원 아동수

9,118명

국내아동 통합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복지, 교육, 건강 3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가족-지역사회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통합 사례관리 현황	535 명
교육 참여 현황	6,428 명
지원 사업 현황	사례관리, 학습지원, 파랑새 봉사단 운영, 금융교육 제공 등
주요 캠페인 현황	냉난방용품지원, 명절 및 기념일 선물 지원 등

인성교육 지원



경제적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들의 마음까지 돌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개인의 인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

인성교육 참여 아동	410명
------------	------

일대일사례 지원



긴급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1:1 사례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된 후원금으로 필요한 물품과 복지,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모금된 후원금은 대상 아동과 가정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가로 모금된 금액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지원 가정	13가정 / 20명
-------	------------

* 지원 인원애 아동및 가족구성원수 포함

제대로된 한 끼



결식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균형 잡힌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지원합니다.

* 아동 및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급식, 특식, 간식, 식료품 등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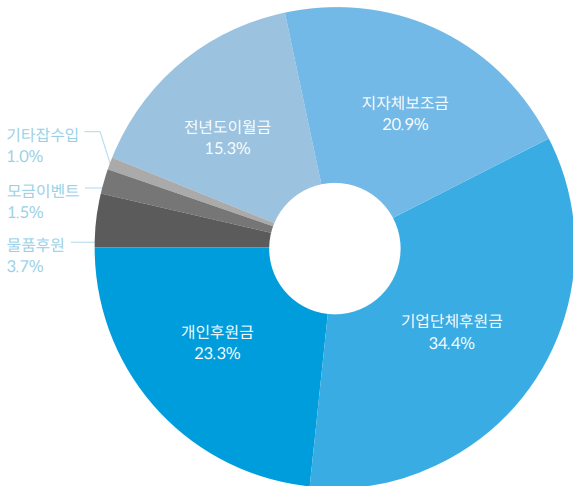
지원 아동	1,725명 / 220,131끼
-------	-------------------

WE START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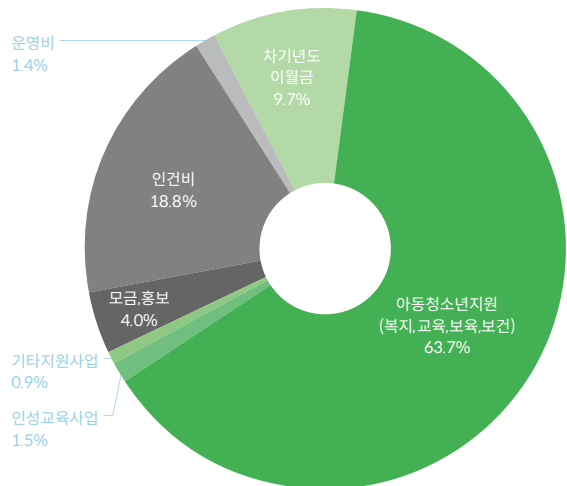
2025년 위스타트는 후원자님들과 함께 경제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5년 수입



구분	금액(원)	비율(%)
지자체보조금	633,400,000	20.9
기업단체후원금	1,042,365,260	34.4
개인후원금	707,270,704	23.3
물품후원	111,061,408	3.7
모금이벤트	44,215,000	1.5
기타잡수입	29,267,095	1.0
전년도이월금	463,959,292	15.3
합계	3,031,538,759	100

2025년 지출



구분	금액(원)	비율(%)
아동청소년지원(복지, 교육, 보육, 보건)	1,930,590,891	63.7
인성교육사업	46,000,000	1.5
기타 지원사업	26,180,355	0.9
모금, 홍보	119,857,014	4.0
인건비	570,239,767	18.8
운영비	43,203,917	1.4
차기년도이월금	295,466,815	9.7
합계	3,031,538,759	100

위스타트 News

1월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남·강진 등 5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함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로 약속했다.



흑한기 물품 지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흑한기를 대비해 56가정을 대상으로 이불, 난방용품, 난방유 등 겨울철 필수방한 물품을 지원했다. 추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 실질적인 온기를 전했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매체 활용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프로그램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놀이·미술·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아동·청소년의 심리 정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언어 표현이 서툰 아이들이 내면의 긴장과 불안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돕고, 감각 통합적 접근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키웠다. 보호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지역 내 마음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설 명절선물 지원

위스타트

설날 온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더 외롭고 쓸쓸한 아이들을 위해 설 명절 선물을 지원하였다. 4,800명 이상의 후원자의 참여로 138가정에 과일, 참치, 햄, 한돈 등의 명절 선물을 전달하였다.



법무법인 동인과 함께한 진로 멘토링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현직 변호사와 함께 법조계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진로를 고민하는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변호사이자 인생 선배인 멘토는 아동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미래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2월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 5개군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학대 조기 발견과 신고 방법,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돌봄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이들의 전문성을 높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해남군 위탁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남군 위탁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요보호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양육자로서의 태도와 고정관념을 점검했다. 위탁부모들은 올바른 양육관을 정립하고 아동 이해를 높였다.



청소년 마음코칭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학업으로 바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마음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정서코칭 전문가와 함께 감정카드와 교류 활동을 하며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 학기를 앞두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보며, 자신감과 주도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배움누리 겨울캠프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겨울방학을 맞아 강원도 홍천에서 1박 2일 겨울캠프를 진행했다. 스키 강습과 볼링, 스포츠 제작 등 다채로운 활동을 즐기며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 우정을 다졌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체험하며 신체를 단련하고, 함께 어울리며 소중한 겨울날의 추억을 쌓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평창 동계스포츠 체험 '수호랑 캠프'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열기가 남은 평창에서 2박 3일 겨울 캠프를 진행했다.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동계 종목을 직접 체험하고 올림픽의 역사와 가치를 배웠다. 겨울 스포츠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동시에, 협동심을 기르고 도전 정신을 배우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겨울나기 지원 사업 위스타트

중앙그룹, KT&G 등 기업 후원자와 개인후원자들의 참여로 전국 6개 기관을 통해 177가정에 겨울철 난방용품이 지원했다. 난방유, 히터, 전기 매트, 겨울용 의류와 침구, 겨울철 건강식 등 각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헤어·바리스타 등 관심 분야의 직업 훈련 과정을 마쳤다. 현장 실무를 익히며 자립 역량을 쌓았고, 수료자에게는 진로 지원금을 지급해 꿈을 향한 실질적 발판을 마련했다. 스스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사회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성장의 시간이었다.



라포엠 X 이연복 셰프, 위스타트 홍보대사의 따뜻한 만남

위스타트

홍보대사 이연복 셰프와 라포엠이 만나 국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의지를 다졌다. 2016년부터 꾸준히 캠페인 참여와 애장품 기증을 이어온 이연복 셰프와 데뷔 이후 지속적으로 기부와 공연에 동참해 온 라포엠은 앞으로도 위스타트와 함께 따뜻한 동행을 지속하고자 한다.



3월

강진군 위탁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군 위탁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요보호 아동이 가정 내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고정관념을 되돌아보았다. 위탁부모들이 올바른 양육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다.



완도초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완도군 여성단체군민참여단과 협력해 완도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인형극을 보며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기 상황 시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했다. 아동 스스로 안전을 지키게 도왔다.



1388청소년지원단 총회 개최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월 21일,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1388청소년지원단 총회'를 열었다. 지난해 활동 보고와 올해 계획을 공유하며,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통합 지원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겨울방학 제대로 된 한 끼

위스타트

매년 방학 기간 결식 위험이 커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식, 특식, 식료품 등 다양한 형태로 식사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1636명의 아이들에게 약 4만끼의 식사를 지원하였다. 한 보호자는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챙겨 먹지 못해 항상 미안했는데, 덕분에 안심입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베리베리 특별한 하루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탐진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성전면에 위치한 굴벵이 농장에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12가정 28명이 참여하여 딸기잼 만들기 활동을 하고, 간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었다. 이후 굴벵이 농장을 탐방,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굴벵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영유아 오감발달프로그램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영유아 오감발달 프로그램은 강진군 육아지원센터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주말에 운영하고 있다. 매달 체계적인 연령별 수업과 과목별 각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매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던 프로그램이었으며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축구 소년 진규의 꿈, 대학 무대를 향한 도약

위스타트

축구 선수를 꿈꾸던 진규가 5천여 명의 후원자와 동료 선수들의 응원에 힘입어 대학 축구팀에 합격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재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결을 지킨 나눔이 일궈낸 결실이다. 위스타트는 아이들이 환경을 딛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



4월

강진군 지역주민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군 주민과 지킴이단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현직 수사관이 사례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와 신고 절차를 교육해 경각심을 높였다. 지역사회가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힘썼다.



진도군 위탁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진도군 위탁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요보호 아동이 가정 내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도록 양육자의 태도와 고정관념을 깊이 되돌아보았다. 위탁부모들이 올바른 양육관을 정립하고 아동을 온전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랑새 봉사단 '동네 한바퀴 줍깅'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파랑새 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서가산 공원 등 동네 곳곳에서 줍깅 활동을 펼쳤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우리 손으로 직접 정화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실천했다. 운동과 봉사를 병행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높였으며, 활동 후 맛있는 저녁을 나누며 마무리했다.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3~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펼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전남음악창작소에서 9개월간 운영했다. 올해는 강진중앙초, 강진동초, 도암초 세 학교의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플룻,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으로 하나되는 시간이 되었다.



미디어 안전체험 '안전스' 운영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척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도박 예방, 딥페이크 대응 등 5개 체험 부스를 통해 디지털 위험성을 직접 체감하도록 돕고 올바른 사용 습관을 점검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청소년 안심약국 '두 번째 보건실'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가스공사 후원으로 관내 10개 약국을 '청소년 안심약국'으로 지정했다. 하교 후에도 긴급 의약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위기 징후를 살피는 생활 속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동네 약국이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거점이 되어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학습 코칭 및 연세대 대학탐방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자기주도적 학습 성장을 돕는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 13회에 걸친 1:1 및 그룹 코칭, 학습법 특강을 통해 효율적인 공부법과 진로를 탐색했다. 또한 연세대학교 탐방을 통해 대학생 멘토로부터 입시 정보와 학습 비결을 전수받으며, 강력한 동기부여와 목표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5월

문화데이 뮤지컬 관람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평소 가장 보고 싶은 문화활동으로 꼽는 뮤지컬 관람을 다녀왔다. 인지도가 높은 넘버 '지금 이 순간'을 들을 수 있는 키질앤하이드 공연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주말의 여가 시간을 공연장에서 즐기며 학업으로 인한 부담도 잠시 잊고, 문화적 소양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 문화탐방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친구들과 팀을 구성해 관심 있는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봄에는 은반지 공방 체험과 역사 방탈출 게임으로 협동심을 기르고, 가을에는 북카페 독서와 실내 스포츠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자율성을 높이고 친구들과 여가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열린 제27회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잔치에 참여하여 '작은 손으로 그리는 나만의 바다' 체험 부스를 운영,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센터의 홍보를 이어갔다. 150명의 아이들이 '투명 물고기 부채 만들기' 활동에 참여, 창의력과 표현력을 향상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했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가정의 달 소중한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아이의 사고를 성장시키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했다. 이번 대회에는 강진군 관내 94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30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품앗이 전체모임 영화관람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품앗이 전체모임'을 열고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평소 자녀 돌봄과 육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 교류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청소년 상담 멘토 '따숨동행' 운영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원대와 협력해 청소년 상담 멘토 양성 교육 '따숨동행' 1기를 운영했다. 수료한 지역주민 15명은 전문 교육을 통해 공감 형성 및 현장 대응 역량을 쌓았으며, 향후 청소년 결을 지키는 멘토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잇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환대 프로젝트 '따뜻한 세상'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내 카페 7곳에서 어른들의 기부로 청소년에게 음료와 응원을 전하는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은 손님으로서 일상의 온기를 경험하고 교류하며 관계를 회복한다. 어른의 나눔이 아이들의 위로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체감하는 소중한 거점이 되고 있다.



봄봄산타

위스타트

어린이날이 소외감으로 남지 않도록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선물을 지원 하는 '봄봄산타' 캠페인을 진행했다. 어려운 환경 탓에 갖고 싶은 것을 망설였던 아이들이 직접 고른 선물을 통해 설렘과 기쁨을 되찾도록 도왔다. 모든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한 시간이었다.



6월

영화를 활용한 아동 권리 교육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주토피아'와 '히든 피겨스'를 시청하며 차별에 맞서는 용기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웠다. 영화 속 사례를 통해 권리 의식을 고취하고, 활동지를 채우며 각자의 감상을 깊이 있게 나누었다. 영화라는 친숙한 매체를 교재로 활용해 아이들이 권리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했다.



다산부모학교 개강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뜻을 이은 다산부모학교가 개강했다. 올해는 대상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양육자 힐링 프로그램이 중심이었다. 특히 강진문화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강진향교에서 '다산 정약용과 차'라는 매개로 한 인문학 강의, 놀이, 체험 등으로 진행하였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야간돌봄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위스타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인성교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아동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 형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활동 중심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와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모모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문화적 다양함을 경험하기 어려운 외곽지역에 찾아가 5~7세의 영유아들을 직접 만나 책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책 속의 이야기를 다양한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표현해보며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표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울림이 있었던 활동이다.



행복나눔터 가족운동회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내 초등학교생 76가족이 참여한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1388 공던지기 등 다채로운 게임을 통해 가족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경품으로 즐거움을 더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행사라는 호평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하루카페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한 '하루카페'를 열었다. 창업과 진로를 직접 체험하며 자립 역량을 키웠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행사 수익금은 전액 향토장학금으로 기탁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성숙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애 첫 뮤지컬 '알라딘' 관람

봄봄센터

문화여가 지원사업을 통해 뮤지컬 '알라딘'을 관람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생애 처음 접하는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에 아이들은 감탄하며 감동을 표현했다. 새로운 문화 예술을 경험하며 상상력을 키우고, 일상 속에서 오래도록 빛날 소중한 추억과 예술적 영감을 가득 채운 시간이었다.



레고코리아 물품 후원

위스타트

위스타트는 레고코리아로부터 356개의 레고를 후원받아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완구가 부족했던 아이들은 레고를 조립하며 성취감과 즐거움을 경험했다.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이들의 자존감과 집중력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돌고도네이션 X 위스타트

위스타트

방학 동안 급식이 중단되어 결식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식료품을 지원했다. 돌고도네이션 플랫폼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간편식 세트를 구성하여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의 밥상을 채웠다. 이번 협업은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며 건강한 성장을 도왔다.



아이들을 응원하는 커피

위스타트

빈믹스 커피 구매 시 매출의 10%가 자동으로 기부되는 '마음 건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커피 한 잔이 취약계층 아동의 심리 지원 비로 연결되는 가치 소비를 실천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금은 위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었다.



4년째 이어온 루카랩의 진심 어린 후원

위스타트

루카랩이 새 학기를 맞아 1,8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문구류 2,270개를 기부했다. 4년째 이어온 이번 나눔을 통해 파자마와 가습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아동들에게 전달되었다. 루카랩의 지속적인 후원은 아이들의 일상에 기분 좋은 변화를 선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7월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신협과 함께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회원 7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 학대 징후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신고 의지를 높여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아빠와 함께하는 마음 회복 프로젝트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마음 회복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아버지들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자녀 발달 단계에 맞는 소통법을 익히는 시간이었다. 자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스타트 청소년시 코딩 교육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7월 배움누리에서 시·코딩 교육을 실시했다. 파이썬 코딩과 생성형 AI 활용법을 익히고, 직접 게임과 이미지를 제작하며 디지털 역량을 키웠다. AI 윤리 교육과 작품 발표회를 병행하여 기술적 숙련도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멋쟁이사자처럼 연계 코딩 교육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멋쟁이사자처럼'과 협력하여 미래 필수 역량인 코딩 교육을 실시했다. 프로그래밍 이론을 배우고 시 틀을 활용해 자신의 진로를 소개하는 발표 자료를 직접 제작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고, 스스로 만든 결과물을 대중 앞에 발표하며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힐링데이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을 위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족욕과 발 마사지로 신체적 피로를 풀고, 파라핀 체험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정서적 위안과 함께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여름방학 제대로 된 한 끼

위스타트

위스타트는 급식이 끊기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국내 결식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식사 지원 사업을 운영했다. 위스타트 후원자, 네이버 해피빈, 돌고도네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인 후원금과 물품으로 8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지원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나를 세우다'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존감 회복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자신만의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연습을 통해 사회성을 높였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협동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친구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법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방과 후 인성 프로그램

다승인성센터

자기 이해와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6주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렀다. 특히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통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14번째 기부, 호피빈의 나눔

위스타트

가수 백호(강동호)의 팬덤 '호피빈'이 생일기념 14번째 기부를 실천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인연을 바탕으로 누적 후원금 1,100만 원을 달성했으며, 방학 중 급식 공백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식료품 지원에 사용되었다.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귀감이 되었다.



평택여중 중고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위스타트

평택여자중학교는 학생 자치 활동인 중고마켓 수익금 715,300원 전액을 위스타트에 기부했다. 환경 보호와 나눔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결실이다. 또래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진정한 시민 교육의 장이 되었다.



8월

볼링 체험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서울도시가스 한마음봉사단과 함께 청소년 볼링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자들이 볼링의 기본자세와 동작을 직접 가르쳐 주며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은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함께 어울리며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여름 밤의 추억, 센터 여름캠프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가장 기다려온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외부 방해 없이 시원한 물놀이와 맛있는 고기 파티를 즐기며 자유로운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밤에는 다 같이 모여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친목을 다졌다. 일상의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온전히 소통하며 천국 같은 즐거움을 만끽했다.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하루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탐진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가족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관내 11가정 30명을 대상으로 가족공예체험을 진행, 연필꽃이를 만들었고 팔빙수를 함께 만들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



찾아가는 읽기중재 프로그램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할머니가 월 1회 가구를 방문하여 책 읽기 활동을 진행했다. 아동들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책을 읽으며, 글과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어 표현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쉽과 성장이 함께한 '영화&하루카페'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소년들은 영화를 보며 휴식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친구들이 직접 만든 음료를 나누며 생생한 직무 현장을 체험했다. 추억을 쌓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경험을 채우며, 일상과 꿈을 모두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검정고시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년도 검정고시에서 센터 이용 청소년 15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맞춤형 학습 지도와 교재 지원, 시험 당일 차량 및 간식 제공 등 세심한 지원이 성과로 이어졌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값진 결실을 본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과 직업 훈련 등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9월

권역별 심층 사례회의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권역별 심층 사례회의를 실시했다. 각 기관의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과 관리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사례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다졌다.



5개군 아동학대 대응 인력 간담회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군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내 학대 예방과 효과적인 사례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정보 공유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긴밀한 아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상담원 직무 역량 강화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조항사 자격 취득 과정을 진행했다. 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정서 안정과 심리 회복을 돕는 전문 기술을 익혔다. 상담 현장에서 다양한 치유 기법을 활용하여 아동의 마음을 더욱 세심하게 어루만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웠다.



추석맞이 독거어르신 봉사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서울도시가스 SCG한마음 봉사단 및 배움누리 파랑새 청소년 봉사단이 함께 고양시 내 독거 어르신 10가정을 방문하였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스 사용 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점검 및 노후 된 가스레인지 교체 하고 명절선물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고3 청소년 대입 면접 대비 특강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대입 면접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위해 '스피치&면접 특강'을 실시했다. 지원 학과별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실전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비언어적 요소까지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STAR 구조 답변법을 익히고 스스로 생기부를 분석 해 질문을 뽑아보며,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높였다.



영유아 팝업 놀이터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강진군청의 지원으로 영유아들을 위한 특별한 팝업놀이터를 운영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 했다. 또한 먹거리 부스, 포토존, 풍선아트 체험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한 부스를 마련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놀이의 장이 되었다.



양성평등한 환경조성! 우리 다함께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공동 육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6가정이 참여해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법을 익혔다. 부모가 함께 돌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평등의 가치를 체감 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발판이 되었다.



꿈가지 진로박람회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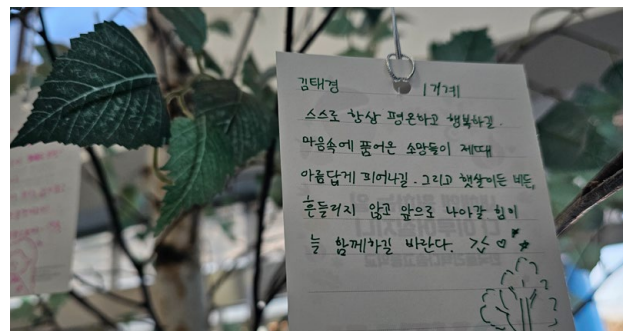
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여한 진로 박람회를 마쳤다. 대학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해 30여 개의 직업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 청소년의 90%가 만족할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로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며 미래 설계를 적극 지원했다.



일상 속 마음 성장 '인성 캠페인'

다솜인성센터

학기 중 다채로운 캠페인을 통해 전교생의 인성 함양을 도왔다. 미션 수행과 방탈출 게임으로 상호 존중과 폭력 예방의 가치를 체득하고, 새해 소원 나무를 통해 미래를 설계했다. 일상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건강한 마음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뜻한 응원의 퇴소 파티

봄봄센터

쉼터에서 장기 생활한 아동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퇴소 파티를 열었다. 이별을 슬픔이 아닌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가정에서도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와 축복을 전했다. 아이가 세상에 나아가는 첫걸음을 축하하며, 쉼터에서의 기억이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선진 기관 탐방

봄봄센터

서울과 안산의 선진 쉼터를 방문해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관리와 시설 운영의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팀을 전수받아 운영 체계를 보완했다. 전문성을 높이고 쉼터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을 다졌다.



10월

해남동초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남동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인형극을 통해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위기 시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익혔다. 아동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대처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심리치료 슈퍼비전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동신대 박은민 교수와 함께 심리치료 슈퍼비전을 실시했다. 내담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논의하며 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내담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썼다.



대한노인회 연계 신고의무자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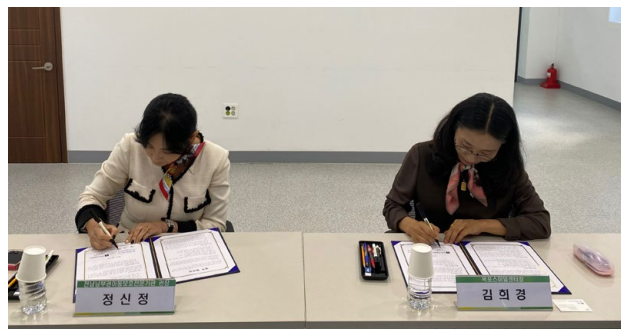
강진신협과 연계해 5개군 대한노인회 회원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어르신들이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목포스마일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스마일센터와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아동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캠페인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방문객들에게 긍정 양육 리플렛을 배부하며 아동 권리와 건강한 양육의 중요성을 알렸다. 가정 내 올바른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아동 보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수능 및 사회진출 응원데이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배움누리 고3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수능 사회진출 응원데이를 진행하였다. 서울도시가스 SCG한마음 봉사단의 응원 선물과 더불어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배움누리 청소년들에게 직접 쓴 편지와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말과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AI시대 청소년을 위한 진로특강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AI 시대에 발맞춘 특강과 멘토링을 진행했다. AI 분야 전문가와 선배 멘토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진로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건넸다.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기를 얻었다.



플레이타임 투게더

위스타드

중앙그룹의 후원으로 국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여가를 지원하는 '플레이타임 투게더'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타임'에 방문하여 활동적인 놀이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파티쉐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강진군의 먼 지역의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킹을 함께했다. 7개 시설에 53명의 어린이를 만나 4회에 걸쳐 함께 한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파티쉐가 되어 직접 만든 대왕 컵케이크를 만들며 가족들과 함께 먹을 생각에 신이 난 표정이 무척 사랑스러웠다.



溫(은)가족힐링캠프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힐링하며 10가족과 함께했던 1박 2일 가족캠프. 치열했던 경쟁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가족 프로그램이다. 가을밤 글램핑장의 운치 속에서 육즙 팡팡 터지는 바비큐를 즐기며 온 가족이 함께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나 됐던 그날의 감동은 아마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천연가습기 만들기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학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천연가습기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친환경 생활 실천과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식물이 습도를 조절하는 원리를 배우고 직접 천연가습기를 제작했다. 체험을 통해 학부모들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아이디어를 배웠다.



사과데이맞이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월 24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사과’를 매개로 화해의 의미를 나누고, 예방 서명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었다. 유관기관과 연합하여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했으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SYMPO 프로젝트

위스타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회 SYMPO와 함께 아이들의 그림을 활용한 굿즈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인성 프로그램 시간에 그린 그림은 달력과 유리컵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목표액의 207%를 달성했다. 수익금 전액은 취약계층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위아자 나눔위크 2025

위스타트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위아자 나눔위크 2025’를 개최했다. 명사 기증품으로 채워진 나눔상점(온·오프라인)과 친환경 팝업스토어 에코빌리지(지구우체국)를 운영해 시민 참여를 이끌었으며, 행사 수익금은 저소득층 아동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눔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함께 나누 뜻깊은 행사였다.



11월

강진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강진군과 함께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 인형극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도지사 표창 수상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STOP 아동학대’ 퍼포먼스에도 참여해 학대 예방은 모두의 행동으로 실현됨을 알렸다.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을 맺으며 전문기관의 위상을 높였다.



사춘기 청소년의 이해 교육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사춘기 청소년의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기 발달 특성과 급격한 정서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능력을 길렀다. 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 난장축제 참여 및 공연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지역 난장축제에 참여해 아동복지 기관들과 합동 부스를 운영했다. 아동들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봉사자로 참여해 시민들을 도왔고, 그간 준비한 K-Pop 댄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사회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무대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냈다.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은 32가정이 참여 69작품이 출품되었다. 강진군 사진동호회의 1차 심사와 강진군 여성친화군민참여단의 2차 심사를 거쳐 5가정을 최종 선발하였다. 선발된 작품은 전시 및 시상식 통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어쩌다아빠 육아골든벨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 강진에 거주하는 20명의 아빠들과 함께 아동 양육에 대한 상식을 주제로 육아 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하였다. 육아의 달인에 도전하기 위한 아빠들의 숨막히는 퀴즈대결이 어느 때 보다 치열했던 이번 골든벨 프로그램에서는 여○○님이 그 영광을 차지하였다.



자녀와 함께 나란히 걷기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강진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완화와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감정 코칭과 요리 실습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익혔다.



수능 아웃리치 '수고했Day'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학로 공원에서 '수고했Day'를 열었다.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과 심리·타로 상담, 풍성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해방감을 선사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 '0g의 흔적'

다솜인성센터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실천했다. 다회용기 사용과 분리배출 목표 설정을 통해 축제 기간 발생하던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반 쓰레기를 단 75L 한 봉지 이내로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즐거움을 넘어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뜻깊은 축제가 되었다.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통합 사례회의

봄봄센터

삼척시청과 교육지원청 등 8개 관계기관이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했으며, 추가 회의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아자 x 라포엠 팬미팅

위스타트

위스타트 홍보대사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이 '위아자 나눔워크 2025'와 연계해 팬미팅을 기증품으로 참여했다. 위아자 나눔상점 온라인 래플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팬들과 특별한 팬미팅을 진행하며 나눔의 의미를 나눴다. 팬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이 됐다.



12월

예비 고1·2학년 및 학부모 입시특강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예비 고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입시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학년별 입시 전형 변화를 분석하고 수시 전략 및 학생부 관리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자기주도 학습법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입시 방향을 정립하며,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시작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희망나래 콘서트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의 후원으로 어린이 합창단이 무대에 섰다. 6개월의 정성 어린 연습 끝에 관객과 관계자들 앞에선 아이들은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화음을 맞추며 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공연을 완성하며 큰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음악을 통해 희망을 나누고 자존감을 높이는 뜻깊은 성장이었다.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 발표회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전남음악창작소에서 두 번째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악기별 연주와 웅장한 합주가 어우러져 가족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음악을 통해 단원들이 성장과 배움의 기쁨을 나누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으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며 따뜻한 예술적 울림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다.



오! 해피해피 크리스마스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탐진로타리클럽과 함께하는 6번째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였다. 미취학 아동 50가정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크리스마스 키링 만들기, 양말목 도어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여 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여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야간돌봄터 영화관람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아동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했다. 관람 전부터 높은 기대감을 보인 아이들은 질서를 지키며 즐겁게 영화를 감상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대중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 감정을 공유, 유대감을 쌓으며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사업보고회 및 꿈드림 졸업식 개최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월 4일,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성장을 축하하는 사업보고회와 졸업식을 열었다. 희망나무 점등식과 졸업장 수여, 장학금 전달을 통해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일궈낸 결실을 되새기며, 센터와 청소년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하는 감동적인 울림의 장이 되었다.



삼척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소 이전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실천이 센터 이전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일일 카페 수익금을 기탁하고 공간 개선 의견을 직접 제안한 결과, 12월 11일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를 이끌어낸 뜻깊은 사례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대 공감 인성 멘토링 프로그램

다승인성센터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역 아동의 멘토가 되어 6주간 인성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멘토들은 책임감을 배우며 성숙해졌고, 멘티 아동들은 긍정적인 변화와 정서적 안정을 얻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과정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따뜻한 울림의 시간이 되었다.



'제대로 된 한 끼' 식료품 지원

위스타트

위스타트는 2025년 연말,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결식 위험이 높아지는 아이들을 위해 식료품을 지원했다. 단순 간편식이 아닌 현미밥, 국·찌개 등 영양을 고려한 품목으로 구성해 가정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방학에도 아이들이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선물이 되었다.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봄봄센터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동들이 자신을 형상화한 케이크를 만들었다. 부정적 감정을 '수고'로 정의해 스스로를 다독이고, 주변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며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 단순히 즐기는 축제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보듬고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따뜻한 정서적 지지와 회복을 경험하는 소중한 올림의 장이 되었다.



중앙그룹·KT&G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위스타트

위스타트는 중앙그룹, KT&G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5년째 이어진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조성된 1억 4천만 원의 기금과 연탄 6만 장은 전국 550가구에 전달되었다. 단순한 난방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



'별별산타'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위스타트

위스타트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별별산타' 캠페인을 진행했다. 1,200명 이상의 후원자님의 참여로 160명의 아이들이 각자 적은 소원에 꼭 맞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따뜻한 경험이 되었다.



라포엠(LA POEM) 팬카페의 따뜻한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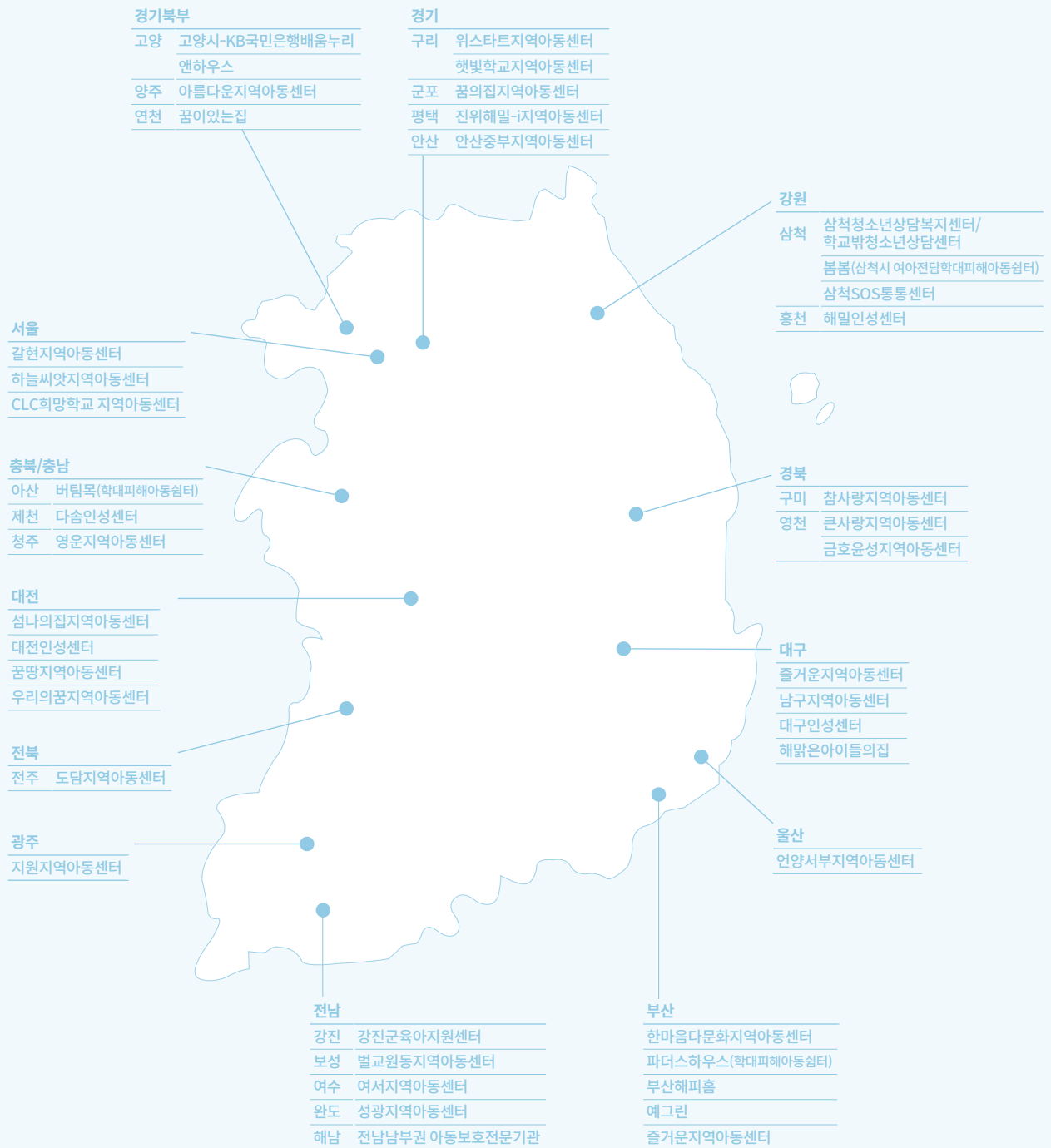
위스타트

위스타트 홍보대사 '라포엠(LA POEM)'의 최성훈·박기훈 팬카페가 꾸준한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온기를 전했다. 박기훈 팬카페 '라피암마'는 작년에 이어 아티스트의 생일과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최성훈 팬카페 '카테고리' 또한 지난 5월 어린이날에 이어 12월에도 나눔을 실천하며 올 한해 두 차례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후원금은 특별한 날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직접 고른 선물과 '사랑 받고 있다'는 확신을 전하는 데 소중히 사용되었다.



WE START

사업장 현황





아이들 마음속 멍을 보아주세요

위스타트 인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기릅니다.

한 명의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후원문의 1577-9572

위스타트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